

### 1. 「建物火災危險度評價」研究書 發刊

保險技術의 提高와 危險測定 및 管理의 한 方法으로 紹介되었던 “建物火災危險度評價” 研究가 일 단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綜合檢討結果가 理事長님의 裁可를 얻어 곧 發刊, 關聯機關에 配布될 豫 定으로 있다.

本 評價方法은 防災技術研究委員會에서 研究價値가 認定되어 主要 防災技術 研究業務로 採擇, '78 年부터 防災研究部에서 이에 대한 研究에 몰두해 왔으며 關聯業界의 關係者들이 參席한 가운데 세 미나를 實施했고 內容紹介를 위한 冊子도 이미 發刊·配布한 바 있다.

本 評價方法에 대한 冊子가 나오기까지는 試驗適用對象으로서 特殊建物 7,957 件 및 '79年부터 '81年 사이의 罹災物件中 453 件을 選定 適用했으며 그 結果를 分析한 內容에다 最近에 進展된 火 災危險 評價方法을 새로이 導入, 이에 대한 研究結果와 內容紹介를 集大成하는 등의 여러 過程을 거쳤다.

이 研究作業이 完成된 意義로서는 무엇보다도 本 評價方法을 國內 產業界에 定着시키고 아울러 關聯 保險業界 및 安全分野 從事者에게 새로운 技法을 提供함으로써 이 分野에 있어서 合理的이고 도 現實性 있는 基盤을 構築하고 더 나아가 活潑한 研究分囀氣의 高調는 물론 危險測定·制御技術 應用에 크게 寄與하리라는 期待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.

여기서 本 評價方法의 基本原理를 간단히 紹介하면,

建物에 潜在하는 危險(活性化 危險 包含)과 防護對策의 各 要素를 關聯짓고 여기에 比重值를 賦課하여 建物內의 危險을 數值化한 것으로서 그 公式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.

$$\text{火災危險}(B) = \frac{\text{潛伏火災危險}(P) \cdot \text{活性化危險}(A)}{\text{防護對策}(M)} = \frac{\text{潛伏火災危險}(P) \cdot \text{活性化危險}(A)}{\text{基本對策}(N) \cdot \text{特別對策}(S) \cdot \text{耐火對策}(F)}$$

위 식에서 潛伏火災危險(P)은 建物の 可變火災荷重( $q_m$ ), 可燃度(c), 不變火災荷重( $q_1$ ), 煙氣 危險(f), 腐蝕 및 毒性危險(k), 建物高로 構成되며, 活性化危險(A)은 作業과 人間要素로 構成된 熱, 電氣, 機械, 化學 危險源을 居住者密度 및 教育程度등을 考慮하여 統計值에 따라 用途別로 等級을 分類해 놓았다. 또 基本對策(N)은 消火事項으로서 消火器( $n_1$ ), 屋內消火栓( $n_2$ ), 水源( $n_3$ ), 消火作業 可能한 人員數( $n_4$ ), 公共消防隊( $n_5$ )가 包含되며, 特別對策(S)은 火災의 感知對策( $s_1$ ), 警報對策( $s_2$ ), 自動消火對策( $s_3$ ), 公共消防隊 狀態와 거리( $s_4$ ), 自衛消防隊 狀態( $s_5$ ), 排煙 및 排熱設備 狀態( $s_6$ )로 構成되고, 또한 耐火對策(F)은 建物構造에 따라 耐火程度를 等級化한 것으로 支持構造物( $f_1$ ), 外壁 狀態( $f_2$ ), 天井 狀態( $f_3$ ), 階段等 垂直部 狀態( $f_4$ ), 防火區劃 크기( $f_5$ ), 창 문 面積( $f_6$ ) 등을 考慮하고 있다.

其他 仔細한 內容은 곧 發刊되는 冊子를 參考하기 바란다.